

더불어 사는 삶 배우는 것이 평화교육의 핵심

지식전달보다 태도 변화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최현진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평화교육은 학교 밖의 비공식적인 교육영역에서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대안학교와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대안적 삶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좀더 많이 확장돼야 한다.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이 실험된 이후에 공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교육에서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 어울리고 평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진은 평화캠프2000에서 발표하는 학생의 모습.

“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말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며, 전쟁을 막으려면 상대방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군사중심의 안보체계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막았으며, 인류에게 평화를 보증해왔는가?

**누가, 어떻게보다
왜라고 질문해야**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두 학생이 싸우는 걸 본 경영학과 교수는 ‘싸움은 손해다’, 체육학과 교수는 ‘그렇게 때려서 언제 피를 보나?’, 의류학과 교수는 ‘옷 찢어질라’, 통계학과 교수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싸우네’ 등의 반응을 다룬 것을 봤다. 만약 평화교육을 하는 (혹은 받는)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를 물었다. 미국정부는 복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복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왜?’ 라는 질문을 해봤을까? 왜 무시무시한 살상을 했는지, 영화처럼, 게임처럼 폭격기가 날아오르고 건물보다 비싼 미사일이 날아들어 낡은 건물을 부숴버릴 때, 그 폭격을 피하려고 작은 바위굴에 숨어드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생각해봤을까?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봤을까? 그것이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후 인명피해를 본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일까?

사람들이 ‘왜?’ 라고 물을 줄 몰라서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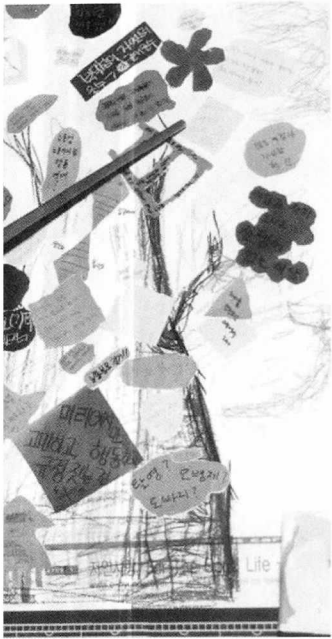
어나는 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안다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인명살상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정의를 명분으로 삼아 전쟁은 일어난다. 자연 보호를 외치면서도 푸른 공간을 점령하며 서울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평화교육에서 중요한 건 지식 전달보다도 태도의 형성이다.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내용을 평화적으로 나누는 행위가 교육돼야 한다. 올바른 태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지식 전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면서 가능해질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평화로운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일정한 틀에 아이들을 끼워넣는 게 아니라 그들의(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회에 대해) 경험 없음을 배려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어른들과의 사이가 억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관계라면?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평화롭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면?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놀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놀이를 한다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힘에 의해, 혹은 다른 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의 처지에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결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다면?

**차이를 관용하는
태도 길러줘야**

아마 그들은 자기 긍정과 차이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먼저 기를 것이다. 갈등



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원인만큼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회피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창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갈등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의견들을 귀기울여 듣는 것을 먼저 배울 것이다. 그런 후에 비판적이고도 열린 사고로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공동작업이 필요한 일들을 알고 협력의 중요함을 경험했기에 경쟁을 통한 승리가 누군가의 좌절과 실패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조화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누구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자원들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생태계와의 관계에서도 파괴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어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평화에 대한 지식(핵문제, 전쟁문제, 갈등문제, 젠더문제, 평화문제, 인종문제, 생태계파괴문제 등)을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자기 자신만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평화교육 실험중 그렇다고 학교교육에서 성급하게 평화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식의 전달만 있는 기형적인 평화교육이 될 우려 때문이다. 윤리교육을 통해 윤리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보다는 시험문제를 더 잘 풀도록, 혹은 다른 국영수 과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의 학교교육이기 때문이다. 보통(흔히 정상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수의 개성(흔히 장애라 불리는) 있는 학생들이 함께 다니게 하는 정책은 올바른 것이지만 그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맞춰주지 않는 한 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과, 보통 학생들은 어설픈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무엇보다 장애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것이다.

오히려 평화교육은 현재로선 학교 밖의 비공식적인 교육영역에서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대안학교와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대안적 삶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교육이 좀더 많이 확장돼야 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이 실험된 이후에 공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쓴이는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

국 친우 봉사회) 동경지부와 한국의 몇몇 평화단체와 함께 준비한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의 평화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는데, AFSC에서 HIPP(Help Increase the Peace Program, 평화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를 진행하는 곳을 꼭 소개하고 싶다.

HIP 프로그램의 목적은 폭력을 줄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이해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젊은이들을 사회변화의 핵심적 인물이 되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3일에 걸친 워크숍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데 진행자에 의해 주도되는 훈련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와 함께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 끼치는 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변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긍정적인 태도 변화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 예로 한 HIP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환경적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 부유층이 사는 곳은 깨끗하고 주변의 강도 깨끗하지만 소수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더럽고 주변의 강도 더러워 철새가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생계문제로 주민들이 그냥 지나친 일을 HIP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함께 연구, 조사해서 철새들이 돌아오는 캠페인 등을 한다고 했다.

HIP 프로그램의 훌륭한 점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 프로그램이 거듭될수록 심각한 주제들을 그룹으로 나눠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한다. 공동체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면서 참가자들의 공동체 내에서는 폭력과 차별이 점차 줄어든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워크숍에 참석한 학생들이 또 다른 워크숍의 진행자가 돼 3살 어린이부터 72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진행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분노에서 출발해 사회구조에 문제제기하면서 좀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이들의 활동이 우리의 현실에서 평화교육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좋은 모델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낡은 건물을 페인트칠해서 보기에만 좋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바꾸고 건물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

최현진씨는 덕성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상근 활동가로 활약했으며, '평화캠프 2000', '평화행진 2001'을 진행했다. 현재 평화인권연대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